

좋은 돌봄을 위한 약속 돌봄은 사람이 합니다.



좋은돌봄 첫 걸음은 장기요양요원 존중에서부터

좋은 돌봄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존중해 주세요.

어르신에게 좋은 돌봄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01 불려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존중은 올바른 호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라고 불러주세요.

02 믿어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나의 가족을 위해 무심코 하는 요구들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믿고 맡겨 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요구 예시

시설요양 | 과도한 프로그램 요청, 무분별한 실시간 보고 요구 등
방문요양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청소, 반려동물 관리, 대용량 김장 등

03 지켜요 안전한 돌봄환경

일하는 사람이 안전해야 좋은 돌봄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언, 폭행,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이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첫째.** 기관에서 이용자와 보호자 대상 면담을 진행합니다.
- 둘째.**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요양보호사와 분리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넷째.** 심각한 폭력 및 성폭력 등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등

우리 기관은 어르신께 좋은 돌봄이 제공되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이용자 및 보호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치매(인지저하증), 완치는 어렵지만 완화는 가능합니다.



두려워 말고, 외면하지 말고 치매 증상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1. 이런 행동, 고의가 아니라 ‘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매가 발생하면 기억력 감퇴 등 인지기능장애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인지적 행동 증상이 나타나 환자와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 상당수는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치매(인지저하증)치료,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확한 진단	•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 목표를 정합니다. • 환자의 문제가 되는 증상에 초점을 맞춰 일관성 있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료 계획 수립	• 이상 행동을 규명하고 약물 치료 또는 비약물학적 치료의 이점을 평가합니다. • 증상의 소거가 아닌 감소를 목표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인지기능 치료	• 인지 기능의 급성 변화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진단에 적합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 치료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치료법을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3. 가족의 이해가 가장 큰 치료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을 위해서는 가족과 돌봄종사자가 치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해와 꾸준한 치료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돌봄은 혼자가 아닙니다.

치매로 인한 타인에 대한 성적 침해 및 폭력적 행동 등은 약물 및 꾸준한 치료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해주세요.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대백과

